

# 언론사 대학평가의 공과1 - 대학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경성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동안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를 준비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대학이 평가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 실시되었던 대학평가 결과와 실제 대학의 사회적 평판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사회적으로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평판 및 선호도에 기초한 평가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학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대교협에서는 언론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평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또 서울 시내 8개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도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과 대교협의 입장

이것은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언론사에 의해서 행해졌던 대학평가에 대한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주된 반대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교협에서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언론사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대학마다 그 규모와 특성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있는냐는 것과 지나치게 편파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학의 본연의 임무에 비추어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예컨대 대학의 규모로만 볼 때 학생 수가 2천명인 대학과 2만 명이 넘는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가 하면, 영어논문의 수나 영어강의의 비율같은 편파적인 지표에 많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둘째, 지나치게 평판도를 중심으로 점수화하고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학교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학에서는 어느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더라도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순위가 높은 대학이 될 수가 있다.

셋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나치게 서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화나 비전 전략 등을 평가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언론사는 언론 본연의 비판적 기능만으로도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학평가 사업까지 수행함에 따라 대학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현상까지 나타날 지경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행정담당자들은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차츰 '권력화' 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학평가의 당사자인 대학과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고 평가를 담당해 오고 있던 대교협이 내세운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대학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주 임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란 여러모로 부족한 학생들을 받아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평가의 대학교육기간을 통하여 부가적으로 얻거나 발전할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가적모형(Value Added

Model)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의 대학평가의 현재 시점의 상태와 걸모습만을 수치화하여 줄을 세우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둘째, 여러 언론사의 무분별한 대학평가는 외국 언론사에서 그 나라 대학평가를 하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고 있으나, 외국 대학에서도 언론사들의 타당성이 결여된 대학평가에 대하여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는 대학평가와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과 규모를 전혀 무시하고 획일적인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대한 우려이다. 즉, 학교의 크기, 국공사립대학 간 국가 지원의 차이, 대학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 대학의 여건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는 대학이 많기도 하지만 대략 수백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 인구 십여 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대학을 동일하게 비교한다거나, 대학 재정면에 있어서 거의 100% 가까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대학과 재단 전입금이 전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100% 의지하는 대학을 하나의 척도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입장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과 대교협의 반발을 계기로 앞으로 대학평가가 나아갈 방향과 반성할 점을 대학의 입장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때까지 대교협에서 실시했던 대학평가는 소비자인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회원교인 대학들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학평가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못했으며, 언론사의 대학 평가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게 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중의 기호에 맞춰서 평가에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오로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신력이 확보된 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대학평가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며 꼭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신력이 확보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대교협 자체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더라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극한의 노력이 없이 그저 회원대학의 권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식으로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평가 결과만을 계속해서 양산한다면 앞으로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정부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 필·자·소·개

### 김경성

고려대학교 교육학과(학사)와 UCLA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2년 서울교육대학교에 임용되어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평가, 사범대학평가와 관계된 연구와 실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발전기획단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